

광주 도심 불법주차 횡행... “주차 의식 개선을”

남구 차량단속 참관제 동행해보니

주차금지 구역 불법주차 ‘눈살’ 단속 불만 방해·항의도 이어져 지자체 주민 공감·동참 등 당부 ‘심각성 체감... 주민들 각성해야’

“지금 뺄 거예요. 잠깐 됐는데 멋대로 스티커를 붙이시면 어떡해요.”

일일 불법주정차 지도원 대학생 이민규(19)군이 상가건물 앞 인도 위 불법 주차된 차량에 계도문을 올려놓는 순간 인근 상가에 있던 차량 주인이 뛰어나와 소리쳤다.

차량 주인은 “지금 내 차에 스티커를 붙인 것이냐. 잠깐 주차했는데 왜 단속하느냐”며 언성을 높였고, 이때 남구 교통지도과 직원 김미진씨가 나서 “스티커가 아닌 계도문이다. 인도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한 곳으로, 주정차가 절대 불가능한 구역이다”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어 “잠깐의 주차라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 흐름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도문을 통해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설명에 차량 주인은 멍쩍은 듯 돌아서면서도, 짜증스러운 불만을 내뿜으며 차량을 끌고 현장을 떠났다.

지난 21일 오후 2시께 광주 남구 도심 일대에서는 교통지도과 직원과 주민이 함께하는 특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진행됐다. 광주 남구가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 단



차량 대시보드에 붙은 자동 번호 인식기의 모습.

속 참관제로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각각 주민과 청소년 신청자 2명을 대상으로 단속 현장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남구가 광주 자치구 중 최초 도입·시행하고 있다. 참관한 주민들에게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2시간의 봉사시간을 부여한다.

이날 펼쳐진 동행 단속은 주민 계도를 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단속 알림을 통한 불법 주정차 해소와 계도문 배부에 중점을 두고 펼쳐졌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보행자 안전 취약지는 물론, 상가 밀집지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갖길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자동단속을 설정한 카메라에 인식돼 줄줄이 적발됐다.

이날 홀로 단속에 참관한 이민규군이



지난 21일 오후 광주 남구 한 상가 앞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일일 불법 주정차 지도원 이민규 군이 ‘바른주차 안내문’을 올려두고 있다.

계도문을 차량 창문에 올려두는 동안 사이렌 소리와 단속 문자 알림을 확인한 시민들이 인근 건물에서 서둘러 뛰어나왔다. 대다수 운전자는 “금방 차량을 옮기겠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냐. 한 번만 봐달라”며 읍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부 운전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잠깐 차량을 댔을 뿐인데 왜 단속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교통지도과 직원 남호철씨는 “대부분 주민들은 단속되면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유예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킨다”면서도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주정차 단속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매일갈

이 과태료 취소를 요구하는 항의 전화를 걸어오고, 심지어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 현장에서 겪은 황당한 에피소드도 털어놨다. 남씨는 “한번은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상가에서 장난감 비비탄총으로 내 머리를 겨냥하고 발사해 부상을 당한 적도 있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단속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들은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서 일부러 몸으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후면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차량을 뒷차와 바짝 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미진씨는 “단속카메라는 360도 회전

이 가능해 전면과 후면 번호판 모두 촬영하고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부러 차량 번호판을 박스나 기타 사물로 가리는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기보다 애초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 100여대에 이르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됐다. 특히 △인도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많은 차량이 주차해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이민규군은 “내가 사는 남구의 교통 문제에 관심이 많아 참관을 신청했다. 단속 참관을 마쳐 보니,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며 “특히 보행자와 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습을 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과 각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상태남구 교통지도팀장은 “주민들의 주차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불법 주정차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참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검찰,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10년 구형

2명 사상... 사고 67시간여만에 검거

새벽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마세라티 운전자 A씨(33)와 도주 조력자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사는 “A씨가 음주 사고를 내 20대의 피해자들을 숨지게 하고도 상당 기간 도피 행각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지인들에게 자신의 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유족들로부터도 용서 받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A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은 B씨에게는 “A씨가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포폰을 구해 주고 도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9월24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전치24주

의 중상을 입었고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했던 여자친구가 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대전·인천을 거쳐 출국 시도를 했다가 다시 서울로 도주했고, 사고 67시간여 만에 강남의 유흥가에서 검거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차량 운전에서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다 보니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인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A씨 등의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광주경찰은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었고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광주·전남 스트레스·우울감 느끼는 청소년 늘어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흡연·음주율은 지난해 대비 감소

광주·전남지역에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지난 22일 공개한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광주 지역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은 지난해 37.4%에서 올해 42%로 증가했다. 전남 지역도 지난해 35.2%에서

39.8%로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했다.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 역시 늘었다. 광주 지역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지난해 25.2%에서 26.8%로 늘었다. 올해 전남 지역의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도 지난해 24.2%보다 상승한 25%를 기록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흡연과 음주 등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개선됐다.

광주 지역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은 올해 기준 4.1%다. 이는 지난해 5.2%

와 비교했을 때 1% 줄어든 수준이다.

전남 지역의 청소년 현재 흡연율은 올해 3.7%를 기록하면서 지난해(5.7%)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음주율도 광주 지역 4.5%, 전남 지역 9.8%로 두 지역 모두 전년도보다 낮아졌다.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을 의미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 등 적절한 맞춤형 근거를 제공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올겨울, 예년보다 포근... 이번주 첫눈 올까

“교통 안전 및 건강관리 주의”

올겨울 광주·전남지역은 평년보다 덜 춥거나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과 30일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중 첫눈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오는 12월과 내년 2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1월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북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적은 티베트 눈덮임의 영향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12월과 2월의 기온이 각각 40%, 50%의 확률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월은 북극해의 적

은 해빙으로 찬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이 40%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지역 월별 평년기온 범위는 12월 3.4도에서 4.4도 1월 1.2도에서 2.2도 2월 2.6도에서 3.8도다.

강수량은 고기압성 순환 가장자리에서 남풍류의 유입으로 12월에 평년보다 많은 눈이 내릴 확률이 40%로 전망됐다. 1월과 2월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50%로 나타났으나 2월의 경우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강수량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중 한기가 남하함에 따라 기온이 급감하고 눈 또는 비가 예보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나왔다.

기상청은 26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저기압이 접근함에 따라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평년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높을 예정이다.

27일부터는 북서쪽의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해기차에 의한 비가 내리며 한기가 남하함에 따라 당분간 낮은 기온이 이어져 28일과 30일은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면 서기온도 급감해 일시적으로 추워지겠고 도로 살얼음이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 및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